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5주일(본당설립30주년 기념일)  
제31권 11호(가해) 2011.2.6

## [묵상]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함지 속에 들어 있는 등불이나  
사람들 앞을 비추지 못하는 빛은  
홀로 아무런 의미 없는 빛입니다.  
짙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것도 아니듯  
맛을 내거나 부패하지 않게 할 음식 없이  
소금만으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속에서  
세상을 품으라는 뜻을 깨닫습니다.  
나는 소금이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는 빛이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세상에 보여준 빛과 소금의 행실을 통해  
저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고.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br>(신부님, 수녀님)<br>예비자 교리반<br>레지오 마리아에                                                                                                                                    | 오후 2:00<br>오후 8:00<br>오후 8:00                                                                |
| 목요일 | 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에<br>전신자 성경통독                                                                                                                                           | 저녁 미사후<br>오전 9:00<br>오전 11:00<br>오전 10:00, 오후 8:00                                           |
| 금요일 | 병자영성체(1째주)<br>M.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                                                                                                                                 | 오전 10:0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br>성령기도회<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8:00<br>오후 6: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br>아도라떼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 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 빈첸시오회<br>●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전 9: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  | (연)                                        |
| 특전미사 | (생)정해홍 요셉, 성세영,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박민환 미카엘       |
| 주 일  | (연)엄은섭 도로테오, 주재원 시메온,<br>고준희 제임스, 윤희중, 양진호 |
| 아침미사 | (생)오상현 스티븐, 엄혜은 도로테아                       |

### 주 일 낮미사

오늘 주일(6일) 11시 낮미사는 본당설립 30주년 기념미사로 개별 미사지향이 없습니다. 전체 교우들을 위한 교중 미사입니다. 덧붙여 오늘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들의 축복을 기원하는 미사이기도 합니다.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8,7-10

화답송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2,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5,13-16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 국악미사곡 |
| 입당  | 211             | 184   | 242   |
| 봉헌  | 382             | 272   | 256   |
| 성체  | 303             | 280   | 291   |
| 파견  | I Could Sing... | 196   | 236   |

###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국법과 도덕률

불의한 인간의 법에 저항하는 힘과 용기는 바로 하느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숭복인 이 경외심은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 힘과 용기는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묵사 13,10)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에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칼 아래 떨어질 준비까지도 갖춘 그런 사람들의 힘과 용기이다. 그러므로 낙태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처럼 본질적으로 불의한 법의 경우에, 그 법을 따르거나 또는 "그러한 법을 옹호하는 선전운동에 참여하거나, 그 법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낙태를 더욱 허용하는 법이 이미 통과되었거나 투표에 부쳐질 준비가 되어있는 곳에서, 낙태 허용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낙태를 더욱 제한하는 법의 통과를 결정하는 입법 투표가 행해지는 경우에 특별한 양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지구의 한 쪽에서는 대개 강력한 국제 조직들의 후원을 받아 낙태에 대해서 우호적인 법들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는 반면에, 특히 그러한 허용적인 입법의 쓰라린 결과를 이미 체험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숙고하고 있다는 징표가 커지고 있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경우에, 낙태 찬성 법을 뒤엎거나 폐기하려는 것이 불가능할 때, 고의적 낙태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선출된 관리가, 낙태에 찬성하는 그러한 법이 일으키는 해악에 제한을 가하고, 그러한 법이 일반 여론과 공중도덕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제안들을 지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불의한 법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법이 지닌 악한 측면에 제한을 가하려는 합법적이고도 적절한 시도이다.

74). 불의한 법들이 통과되는 경우에 흔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은 그 법에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서 양심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된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에 강제로 참여 당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며, 그러한 선택은 직업상 좋은 위치를 희생하거나 출세에 대한 정당한 희망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아서는 불의하지만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이기까지 한 법이 규정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은 위협받는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은 결국 물의를 일으키고, 생명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당연한 반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허용하려는 정신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양보해 나가도록 이끌어가게 한다. (◆계속)



## 세상의 빛과 소금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에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응한 사람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런 되새김 없이 무심코 흘러보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삶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의 이익을 좇아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세상을 살면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외면하며 산 날들이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뼈아픈 상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힘들게 달려왔지만 그게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마는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꿈꾸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날마다 반성하는 삶”, “용기있는 삶”, “무언가 남는”, 즉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이들의 대답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값싸고 흔한 것이지만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수물이 바로 소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물도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이 없으면 모두 다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에서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볼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둔 세상을 환히 밝히고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이 녹이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커다란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날마다 반성하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의 씨를 뿌리고 선을 행할 용기를 갖는다면, 그리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참된 진리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없더라도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남성철<br>베네딕도 | 엄영숙<br>마리아  |
| 제1독서자 | 서현수<br>율리아     | 김교복<br>레오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박소영<br>프란체스카   | 서용숙<br>에스텔  | 현영화<br>베로니카 |
| 제물봉헌자 |                |             | P.V.<br>1 반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박소영<br>프란체스카   | 이진향<br>아네스  | 정미영<br>미카엘라  |
| 제1독서자 | 이상용<br>엘리아     | 권오상<br>바오로  | 이영석<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자 | 전지요<br>글라라     | 권순길<br>체칠리아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하버/카슨<br>2반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본당 설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백삼위 공동체가 설립된지 오늘로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LA대교구 San Pedro Region 담당)을 모시고 기쁨의 주님찬치에 초대되어 기념미사를 거행합니다. 특히 이 미사 중에 성인 교우 27명이 견진성사를 받고 더욱 굳건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게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 일시 : 2011년 2월6일(주일) 오전 11시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이장환 본당 신부님
- 견진성사자 명단 : 김미성 에스텔,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김영덕 다니엘, 권병유 프란치스코, 권지용 라우렌시아, 남인구 야고보, 박승림 요셉, 박정람 마르시아, 배경락 다니엘, 백연주 사라, 신동운 빈첸시오, 이준원 예로니모, 이혜숙 요세피나, 이형삼 요셉, 이영호 요한, 이원 가브리엘, 오강남 안젤라, 장수영 패트릭, 정현영 엘리사벳, 정남형 알베르토, 정광미 프란체스카, 전경자 모니카, 차 안젤라, 차병용 클레멘스,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최지원 크리스토퍼, 최현희 요안나(이상 27명)

◆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님 사제서품 18주년 축하드립니다.**

- 오늘은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께서 1993년 2월6일 부산교구 주교좌본당 남천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신지 18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교우가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신구약 통독**

- 주간별해설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성전
- 지도 : 이장환 신부님(이주간 암송성구 주보 5면 참조)

- 렉시오 디버나 성경반은 신구약 통독 끝날때까지 휴강
- ◆ 전신자 모두 예비자를 봉헌합시다.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전신자 봉헌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세례식 일정은 추후 알립니다.

- 환영식 : 2011년 2월27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3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문의 : 복음화분과장 김충섭 마틴 ☎(213)820-7636

◆ **백삼위 골프 2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2월12일(토) 오전 10시20분
- 장소 : Chester Washington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박시모 골프회 총무 ☎(310)965-0002

◆ **제1회 백삼위 서예모임 작품전시회**

- 전시기간 : 2월19일(토)~2월 27일(주일)
- 축하 리셉션 : 19일 오후 1시, 강당
- 무료가훈 써주기 : 서예가협회장 일호 선생(한중일 초대작가)께서 백삼위 교우들을 위해 당일 가훈을 무료로 써드립니다. 문의 ☎(310)374-1572 이명렬 라파엘

◆ **간단한 통증 상담 및 Care(조치)**

- 일시 : 매주 목요일 성경통독 아침반 전후 30분씩, 회의실
- 대상 : 요셉회, 안나회 중심 교우들
- 문의 : 한의사 권진열 피데스 ☎(310)800-3592

◆ **성모회 김치병 수집합니다.**

백삼위 성모회표 김치판매를 앞두고 집에 사용하지않는 빈 김치병을 수집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 문의 : 성모회장 최옥희 데레사 ☎(310)508-2912

◆ **새해달력 광고 후원금 보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6일(주일) : 본당설립 30주년맞이  
전교우 친교장에서 점심 나누기
- 2월13일(주일) : P.V. 3반(배추우거지국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구본엽<br>김영길<br>김현숙<br>엄세중<br>윤화경<br>장수창<br>한혜숙 | 김광일<br>김우용<br>박기돈<br>엄정자<br>이근태<br>장영진<br>현석주 | 김광자<br>김원모<br>박동수<br>오세원<br>이유무<br>정혜영<br>한길선례 | 김기석<br>김일선<br>박종렬<br>오수인<br>이인석<br>조영희<br>이크리스 | 김병조<br>김재연<br>서성용<br>오영섭<br>이현주<br>최영신<br>한금순 | 김성일<br>김종문<br>양영관<br>오진<br>임한나<br>한금순 |
|----------------|-----------------------------------------------|-----------------------------------------------|------------------------------------------------|------------------------------------------------|-----------------------------------------------|---------------------------------------|
| 합계 : \$3,795   |                                               |                                               |                                                |                                                |                                               |                                       |
| 미사헌금 : \$3,161 |                                               |                                               |                                                |                                                |                                               |                                       |

| 성전헌금               | 강순복<br>김성일<br>김현숙<br>엄세중<br>윤화경<br>장수창<br>한길선례 | 구본엽<br>김영길<br>박기돈<br>엄정자<br>이근태<br>정혜영 | 김광일<br>김우용<br>박동수<br>오세원<br>이유무<br>조영희 | 김광자<br>김원모<br>박종렬<br>오수인<br>이인석<br>최영신 | 김기석<br>김일선<br>서성용<br>오영섭<br>이현주<br>한금순 | 김병조<br>김종문<br>양영관<br>오진<br>임한나<br>한혜숙 |
|--------------------|------------------------------------------------|----------------------------------------|----------------------------------------|----------------------------------------|----------------------------------------|---------------------------------------|
| 합계 : \$2,245       |                                                |                                        |                                        |                                        |                                        |                                       |
| 감사헌금 : 윤화경         |                                                |                                        |                                        |                                        |                                        |                                       |
| 달력광고 후원금 : \$1,800 |                                                |                                        |                                        |                                        |                                        |                                       |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일시 : 4월1일(금)~3일(주일) 오후 4시 성당 출발
- 장소 : 태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50(\$70, 3월14일 이후)
- 신청마감 3월21일 \*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받습니다.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 이헬레나 교장 ☎422-0066

남자주 소식

◆ 작은 예수회의 장애인 후원 '일일점심과 차' 행사

- 일시 : 2월12일(토) 낮 12시~오후 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애시설(올림픽과 후버 인근)
- 문의 : 노장오 요셉 운영이사 ☎(213)387-3301

◆ 전신자 친구약 통독 6주간 암송 성구 ◆

- 2월7일(월) 이사야서  
나는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녹이듯 하지는 않고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너를 시험하였다.(48,10)
- 2월8일(화)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49,3)
- 2월9일(수)  
내가 좌우로 퍼져 나가고, 네 후손들이 뭇 나라를 차지하여 황폐한 성읍들에 자리 잡을 것이다.(54,3)
- 2월10일(목)  
나는 드높고 거룩한 곳에 좌정하여 있지만 겸손한 이들의 넋을 되살리고 뉘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뉘우치는 이들과 겸손한 이들과 함께 있다.(57,15)
- 2월11일(금)  
해는 너에게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 달도 밤의 광채로 너에게 비추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너의 하느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어 주시리라.(60,19)
- 2월12일(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잠려한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61,1)
- 2월13일(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65,18)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행사 | 기념미사 및 성인 견진성사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제단체 모임의 날 | 오전 9시, 오후 1시 |
|-----------|--------------|

| 소공동체 부 장             |     | 김씨니 클라라                 | (310)612-8840                            |
|----------------------|-----|-------------------------|------------------------------------------|
| 차 장                  |     | 박희자 마리아                 | (310)325-6982                            |
| 차 장                  |     | 이경수 헬레나                 | (310)972-9193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   | 1   | 변혜경 올리아나<br>920-5153    | 강순복 요세피나 850-6388<br>2/12(토) 오후 7시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박선희 소피아 714-296-6799<br>2/12(토) 오후 7시 강당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54-9407    |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br>2/18(금) 오후 8시 성당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7-4749     | 정종미 클라라 377-4749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 | 1   | 이진향 아네스<br>989-0366     | 김대우 비오 378-8763<br>2/12(토) 오후 6시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이상규 다니엘 424-263-7819<br>2/22(화) 오후 7시    |
|                      | 3   | 권영옥 루시아<br>720-2876     |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br>2/7(월) 오전 10시30분 |
|                      | 4   | 이은록 요셉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  | 1   | 이명자 마가렛<br>433-9075     | 조정석 수산나 433-9075<br>2/18(금) 오후 7시30분 강당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박정람 마르시아 972-9193<br>2/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
|                      | 3   | 안희경 크리스티나<br>750-4051   |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br>2/12(토) 오후 6시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  | 1/2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오혜숙 루시아 327-8035<br>2/11(금) 오후 7시        |
|                      | 3   | 대전희 :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 | 1/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이미령 엘리사벳 991-5895<br>2/12(토) 오후 7시30분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  | 1   | 남경희 베네딕타<br>384-3289    | 송종두 요한 544-1267<br>2/11(금)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안민수 베드로 544-8908<br>2/14(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김도원 다니엘 892-1213<br>2/11(금)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이영숙 수산나 544-5078<br>2/8(화) 오전 10시30분     |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사

##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겐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오늘의 백삼위 한인 성당이 있기까지 사랑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역사와 명예를 파괴하는 데는 한 순간이면 되지만 그 역사와 명예를 되살리는 데는 그것이 쌓아온 시간만큼이나 필요하다는 진리를 새삼 떠올립니다. 그토록 소중한 저희의 역사이기에 어느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시간들을 저희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삼기 위하여 저희 공동체가 시작한지 30주년이 되는 올 해를 뜻 깊게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장환 마르피노 신부님

저희가 30주년을 기념하는 목적은 인간의 유한한 시간을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며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간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저희 공동체에 보여 주셨던 하느님의 메시지는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였으며 평화와 일치 그리고 이웃을 위한 봉사의 메시지였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느님의 메시지를 담아 3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공동체는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겐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라는 말씀을 새기며 30주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를 지양하고, 30년이란 세월에 걸맞은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반성의 시간을 통해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미래는 어떠해야할지 그 모습을 그려보고 그 모습에 맞갖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는 찬미를"**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과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겐 사랑을"**에는 이웃과 화합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해 먼저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픈 과거는 어느 개인에게나 공동체애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역사는 부끄러운 상처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있는 불편한 공동체의 모습에서 벗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에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찬미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이제 저희는 서른 살의 의젓한 성인답게 아픈 과거를 희망의 미래로, 분열의 공동체를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만의 공동체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저희 공동체가 있기 위하여 애쓰셨던 모든 전임 사목자들과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들 드립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열정과 봉헌을 주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저희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주님의 축복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뜻 깊은 30주년을 보내도록 노력합니다.

<◆ 2011.2.6 본당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피노>